



‘물환경 정책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회장 박천상)는 제13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제환경기술전(6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사기간 중 6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센터 310호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환경 정책설명 및 신기술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와 산업체에서 나와 물관련 정책 및 신기술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최근의 환경정책을 청취하며 질의응답도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이날 강의 내용은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 이형섭 사무관이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종합계획”을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발표를 통해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한 수생태계 위해성 저감을 위해 환경부에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

성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채은 사무관은 “물환경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향후 물관리 정책의 목표를 오염물질 처리 위주의 수질관리에서 수생태 복원 및 국민건강보호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밖에 환경부 유역총량제도와 조석훈 사무관이 “수질오염총량제 향후 정책 방향”을, 환경부 수생태 보전과 고대현 사무관이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 신기술 발표업체인 디에이치엠(주)의 신기술을 한국기계연구원 김영주 박사가 “폐수 및 폐기물 준설 시스템”을, (주)한독이엔지 황열순 대표이사가 “고농도 유기성 질소(TN) 폐수처리기술”을, (주)이화에코시스템 변상철 환경기술연구소장이 “외부교환 부쉬형 원심탈수기”를, 동일화학 한규남 실장이 “물 재이용을 위한 필터시스템 및 수처리제의 메카니즘”을, (주)대하이엔지 오석찬 팀장이 “친환경 시스템을 적용한 블로워”에 대해 설명했다. ㉔